

기획특집

온라인 여성인권 침해

- 온라인 여성인권 피해의 개념과 현황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온라인 공간의 여성호명 현상과 젠더적 함의
황슬하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강진숙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 한국 온라인 공간과 여성 혐오 정서
김수아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온라인 여성인권 피해의 개념과 현황¹⁾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왜 문제인가?

오늘날 소통의 장으로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얼굴을 보는 만남에 못지않게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 아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 공동체를 확장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온라인 소통은 점차 심각한 역기능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적 규칙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일부 사람들은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즉, 서로의 소통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 비방, 음해하는 등 인권침해에 상응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성 및 디지털 정보의 비소명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명예훼손,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이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이 특별히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여성의 온라인 참여와 전반적인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관련된 악성댓글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의 사건에서 상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나아가 성폭력적 발언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신체 사진 혹은 성행위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1) 이 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년 보고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유포하는 일도 많아 여성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뿐 아니라 평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생활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채선당녀’, ‘된장국물녀’, ‘수퍼폭행녀’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SNS상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적지 않다. 여성들은 온라인 인권침해를 당하면 남성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성들의 인권피해에 고려해야 할 측면이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은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을 망설이게 하여 온라인 참여 자체를 억누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SNS와 같은 확산성이 높은 매체에서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여성인권 피해의 개념과 법적 적용

온라인에서 여성의 인권피해는 많은 경우 여성의 성(gender)과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범주 하에서 여성의 피해를 논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Chawki & Shazly, 2013). 그런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들은 정확하게 범주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유형들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마다 의미하

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유형화하는가 하는 것은 온라인 인권침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실제 인권침해 사건을 처벌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 통일된 유형화를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온라인 인권과 관련해서 사생활권(privacy right)을 중시하고 있고 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침해, 해킹, 정보통신망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들은 특별히 여성에게만 더 발생하는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익명의 다수를 상대로 한 주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의 성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여성인권 침해는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 때문에 가해지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성역할 때문에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명예훼손, 영상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성희롱,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는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고 실제로 이 개념들은 같은 현상들을 다르게 부르거나 다르게 묶기도 한다. 이러한 유사개념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는 성희롱이다.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강도의 성적 의미를 가진 놀림,

공격, 모욕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저랄드와 동료들(Fitzgerald et al., 1995, Chawki & Shazly, 2013에서 재인용)은 성희롱을 젠더 기반 희롱(gender harassment),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그리고 성적 강요로 나누었는데 이중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이 중 주로 젠더 기반 희롱이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ibid., 72). 온라인에서는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의 폭력이 행사되기 때문이다. 젠더 기반 희롱은 상대의 젠더와 관련하여 상대를 모욕하는 원치 않는 언어나 행동 혹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의도의 자극을 말하는데(Barak, 2005, Chawki & Shazly, 2013에서 재인용) 온라인에서는 “언어적, 혹은 시각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격적 성적 메시지의 전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채팅방이나 포럼 등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급, 더러운 성적 농담”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또 메일을 통해 “포르노 사이트, 혹은 섹스샵 악세서리, 비아그라 같은 약이나 음경확장 같은 성과 관련된 의학적 내용”들을 보내는 것이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등 “대단히 넓은 범주의 행위”들을 말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성적 욕설, 강간이나 추행의 위협” 등을 포함한다(Chawki & Shazly, 2013:72). 성적 강요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성행위를 하게 되는 것으로 강간으로부터 비신체적 압력”을 포함하는데 “마치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위협, 보상, 겁주기”를 언어나 영상을 통해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각각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

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이 때문에 두 개념은 대체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오늘날 이 둘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대중의 의식 속에서는 성희롱은 성폭력보다 좀 더 가벼운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주관적이어서 어디까지가 가벼운 침해이고 어디서부터 무거운 침해가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차별적으로 쓰기보다는 둘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하는 편이 좋다. 그런데 성희롱을 선택하는 것은 현재 성희롱의 법적 개념이 직장에서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에 성희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다양한 성희롱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성희롱의 개념은 훨씬 포괄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의 혼동 때문에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법에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혹은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른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오프라인 성폭력법에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적 적용성이 높고 또한 개념의 이해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성폭력은 성매매의 개념을 포

합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폭력도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포함할 수 있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정보(의학적 내용 포함), 음란한 영상(포르노 포함)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상대의 성적 행위나 신체노출 요구, 성적 욕설, 성적 대화 요구, 성추행 위협, 성관계나 성매매를 제안함으로써 불쾌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성폭력 개념에 포괄되지 않는 인권침해의 현상들은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영상 유포의 범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 중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침해의 성격에 있어서도 성폭력과 구분되고 온라인에서의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개념으로서 명확하다. 스토킹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온라인 성폭력과 같은 개념일 수 있지만 성적 의도가 없이도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별도의 범주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모욕은 현

재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에 대해 심한 욕설이나 비방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는데 그 속성에 있어 오프라인의 모욕과 다르지 않아 오프라인의 모욕죄 규정하는 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영상유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침해행위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상기기 보급과 SNS 확산으로 인해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다. 법적으로 성폭력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의 음란한 영상의 배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영상유포의 문제는 성폭력의 측면에서보다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예훼손의 범주로 포괄하면 온라인에서 침해의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를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모욕, 영상 유포로 규정하기로 한다. 다음 표에서는 각 유형의 적용 가능한 법령과 처벌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법령

유형	구성요건	관련법률	처벌
온라인 성폭력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호(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 제2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의 1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계속〉

유형	구성요건	관련법률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력과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자, 성매매 소개 및 알선 혹은 성매매를 광고 한 자,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모두 처벌에 관한 조항)	폭력과 위력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 성매매 소개 및 알선 혹은 성매매를 광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규류 또는 과료
온라인 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 제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 제3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혹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모욕	온라인 모욕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형법에 있는 모욕에 대한 모욕의 정의를 가져와 사용(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유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 제2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의 1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계속〉

유형	구성요건	관련법률	처벌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추구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재구성, 이수연 외(2014), 39-40쪽에서 재인용

온라인 여성인권피해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피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각 유형의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1,428명, 6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1,376명, 67.4%), 명예훼손·모욕(726명, 35.5%), 영상 유포(53명, 2.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과 ‘성폭력’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과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명예훼손과 영상유포 뿐이었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남성이 721명(50.5%), 여성이 707명(49.5%)으로, ‘성폭력’의 경우에는 남성이 718명(52.1%), 여성이 658명(47.9%)으로 남성의 피해 경험이 조금 더 많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남성이 430명(59.2%), 여성이 296명(40.8%)으로, ‘영상 유포’

의 경우에는 남성이 37명(69.8%), 여성이 16명(30.2%)으로 남성의 피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피해의 실제적인 영향인 피해 후 심리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여성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남녀 전체에서 심리상태의 평균을 보면 영상유포,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피해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충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영상유포나 명예훼손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별로 보면 영상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녀 간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심리문항은 피해를 입은 후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의욕이 떨어졌다’로 모든 피해의 유형에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는 ‘우울했다’로 영상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스토킹’과 ‘성폭력’의 경우 ‘흥미·의욕이 떨어졌다’와 ‘우울했다’는 남녀 성별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불쑥 머릿속에 그려진다’, ‘괴로운 감정이 든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온라인 인권 피해 경험 현황

유형	문항	피해자 수			
		남성	여성	평균	전체
스토킹	1.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	629 (59.7%)	640 (64.6%)	1270 (62.2%)	1428 (69.9%)
	2.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사적인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단, 스팸 제외)	394 (37.4%)	384 (38.8%)	777 (38.0%)	
	3.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182 (17.3%)	132 (13.3%)	314 (15.4%)	
	4.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다	343 (32.6%)	258 (26.1%)	600 (29.4%)	
성폭력	1.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372 (35.3%)	298 (30.1%)	688 (33.7%)	1376 (67.4%)
	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229 (21.7%)	173 (17.5%)	403 (19.7%)	
	3.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619 (58.8%)	572 (57.8%)	1190 (58.2%)	
	4.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286 (27.2%)	282 (28.5%)	568 (27.8%)	
	5.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단, 스팸 제외)	160 (15.2%)	91 (9.2%)	235 (11.5%)	
	6.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단, 스팸 제외)	193 (18.3%)	83 (8.4%)	276 (13.5%)	
명예훼손 · 모욕	1. 나의 사적인 정보(학교, 직장, 나이, 주소, 가족관계, 과거)가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다 (단,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제외)	306 (29.1%)	198 (20.0%)	504 (24.7%)	726 (35.5%)
	2.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다	137 (13.0%)	69 (7.0%)	206 (10.1%)	
	3. 내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다	131 (12.4%)	59 (6.0%)	190 (9.3%)	
	4. 지나친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온라인에서 받은 적이 있다	197 (18.7%)	134 (13.5%)	331 (16.2%)	

〈표 계속〉

유형	문항	피해자 수			
		남성	여성	평균	전체
	5.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공동으로 비난이나 공격을 한 적이 있다	135 (12.8%)	60 (6.1%)	195 (9.5%)	
영상유포	1. 내 몸의 은밀한 부분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다	35 (3.3%)	16 (1.6%)	51 (2.5%)	53 (2.6%)
	2.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적이 있다	34 (3.25%)	16 (1.6%)	50 (2.4%)	

출처: 이수연 외(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132쪽

이처럼 온라인 인권피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유형에 따라 남성의 피해 경험은 여성의 피해 경험보다 많은 경우도 있지만, 피해를 겪은 후 감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인권 피해는 유형에 따라 남성에게 더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여성의 정신적 피해는 여성이 더 큰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상유포는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높지만 여성에게 더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주로 일대일로 일어나는 스토킹이나 성폭력과 달리 나에게 대한 정보가 온라인 공간의 모든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며 여성의 성적 순결이나 정조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에게 훨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모든 피해유형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온라인 인권침해가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를 경험한 장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스토킹 유형의 경우 ‘SNS’가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메일’, ‘게임’, ‘기타’순이었다. 성폭력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SNS’, ‘게임’, ‘개인홈페이지/블로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모욕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포털/커뮤니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메신저’, ‘SNS’, ‘게임’, ‘메일’, ‘개인홈페이지/블로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 유포 유형의 경우에는 ‘SNS’가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메일’, ‘기타’,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SNS’와 ‘메신저’, 그리고 ‘포털/커뮤니티’ 세 곳에서 온라인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버 등)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한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SNS’ 상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상들을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 손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 및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음란성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초상권 침해문제 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메신저’도 마찬가지로 채팅을 통해 음성, 혹은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편리해짐에 따라 무단 및 불법으로 많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메신저’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사적, 상업적 문자메시지와 영상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폭력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가 욕설 등이 발생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비방 공격을 당하는 것 등 모욕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털/커뮤니티’는 인터넷 뉴스, 토론방, 게시판 등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어,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 토론을 나누면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인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온라인 인권 피해 방지에 힘써야겠지만, 특히 ‘SNS’,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세 곳의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교류나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온라인 인권침해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사체계, 정책, 법령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온라인 성폭력을 경찰청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 성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의 범주를 포함시키고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의 윤리 문제, 그리고 온라인 문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로서 인터넷 기업 자율규제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이 좀 더 인권보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차원에서 온라인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신고시스템은 그다지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대응속도가 빠르지 않고 신고와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그 중 얼마가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신고시스템의 문제는 신고시스템을 정교화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언제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온라인 인권침해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캠페인,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의식전환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남녀의 투쟁의 장이 아닌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범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의식전환으로서의 담론의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관음증이나 감시행위 같이 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의 자제 등 전반적인 온라인 문화개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도 적극적 신고와 여론 환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깨끗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이수연 · 이혜림 · 김수아 · 김하얀(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Barak, A. (2005). Sexual Harassment on the Internet.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3(1), pp.77-92.

Chawki, M. & Shazly, Y.(2013). Online sexual harassment: Issues and Solutions 4. JIPITEC2, pp.71-86.

Fitzgerald, L., Gelfand, M. & Drasgow, F. (1995). Measuring Sexual Harassment: Theoretical and Psychometric Adva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온라인 공간의 여성호명 현상과 젠더적 함의¹⁾

황슬하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강진숙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1. 들어가며

‘개똥녀’, ‘된장녀’, ‘루저녀’, ‘패륜녀’... 그리고 최근 ‘김치녀’에 이르기까지 이 이름들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공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위 ‘00녀’의 사례들이다. 이중 ‘00녀’의 시발점으로 간주되는 ‘개똥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바 있다. 전철 내에서 벌어진 20대 여성의 비도덕적 행위는 다수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었고, ‘온라인 마녀사냥’이라는 새로운 문화현상과 비판적 담론들을 형성하기도 하였다(Krim, 200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된장녀’라는 호명 역시, 일부 여성의 사치스런 소비행태를 지적한 데에서 시작되어 한국 여성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언어가 되었다. 즉 ‘개똥녀’와 ‘된장녀’에서 시작된 여성호명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고 비난하는 언어적 기표를 넘어 여성을 둘러싼 의미와 담론을 포함하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소위 ‘00녀’ 현상에서 촉발된 여성호명 담론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채널과 결합하며 여러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해당 여성에 대한 비난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됨에 따라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거나 한 개인의 잘못된 전체 여성들에게로 투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2011년 이후 온라인 공간에 등장한 ‘김치녀’라는 호명은 단순히 여성의 부정적인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표현을 넘어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를 담지 한다.

여성호명에 관한 일련의 담론들은 활동적인 네

* djssk856@naver.com

** jskang1@cau.ac.kr 교신저자

1) 이 글은 황슬하 · 강진숙(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의 대한 질적 연구" (통권 제28-4호)의 내용을 발췌 ·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티즌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형성하며 퍼져나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주로 2,30대 젊은 여성 및 남성에게 국한된다는 것이다(주창윤, 2011).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 중 하나는 온라인 공간의 과격한 남성 네티즌들이 일방적으로 2,30대 젊은 여성들을 비정상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피해자-가해자 프레임이다(김수아·최서영, 2007). 해당 관점은 특정한 사회현상이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시되고 문제화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을 구획하는 특정 젠더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가해자 구도만으로 해당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여성호명 담론을 둘러싼 여러 젠더적, 사회문화적 함의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00녀’를 둘러싸고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남성들의 극단적 여성혐오 현상, 남성인권 보장에 대한 주장 등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일방적 권력 행사자로서의 남성을 전제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성/여성, 권력/억압 등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의 여성호명 관련 쟁점들을 하나의 담론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여성호명 담론이 단순히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혹은 억압의 측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담론의 긴장 관계 속에 얽혀있을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글은 여성호명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2,30대 젊은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젠더적 의미와 이러한 담론 형성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의 온라인 문화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00녀’ 현상과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적 이슈의 함의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반여성주의적 정서와 온라인 공간에 관한 논의

2000년대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주체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통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여성호명 담론이 증가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은 현실 사회와는 다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온라인 공간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공간의 등장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젠더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었다(Haraway, 1991). 즉 현실사회의 남성지배적인 젠더 질서의 대안적 혹은 저항적 공간으로 기대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공간을 젠더 불평등이 오히려 재생산 및 강화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남성지배적 현실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오히려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며, 온라인 공간의 가부장적 식민화 및 젠더화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은 ‘남성다운’ 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남성다운’ 행동 양식을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젠더규범을 실현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젠더적 측면에서 온라인 공간은 상대적인 익명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에 무관한(gender-free)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 코드를 자극하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신희선, 2005, 233쪽).

구체적으로 토론 상황이나 게시판에서 성적 비하와 욕설 등을 통해 여성을 배제하거나 사이버상의 성폭력을 통해 남성성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태도, 온라인 게시판에서 남성성을 재현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을 반여성적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 등 온라인 공간을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다양한 실천들이 존재해왔다(윤세정, 1999; 이선영, 1999). 이러한 젠더 편향적 실천과 움직임은 주로 남성 회원들로 이루어진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졌으며, 여성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담론이 생산되는 주요 공간으로 지목되며 온라인 공간의 마초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남성 위주의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문제시하고, 악의 축으로 정의함으로써 퇴색되어가는 남성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담론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여성의 비정상 범주화를 통해 남성성을 투쟁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은 현실 사회의 남성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이는 여성의 대상화 및 비정상 범주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김수아 · 최서영, 2007).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젠더 문제는 전적으로 저항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넘어 복잡한 관계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성호명 담론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 억압의 공간, 혹은 여성주의적 저항의 공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2,30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 온라인 환경이라는 여러 제반 요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담론의 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여성은 단순히 가부장적인 사회

내의 종속적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알파걸’, ‘슈퍼우먼’, ‘골드미스’ 등은 여성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호명의 예이다(홍지아, 2012). 젊은 여성 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산업과 소비문화가 발달하고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과거세대와는 차별화된 이질적 감수성 및 문화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이다(이정연 · 이기형, 2009). 즉 2,30대 여성들은 연애에 대한 태도 및 결혼관, 남성 선택의 기준에 있어 이전세대와는 차별화된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천혜정, 2003, 2005). 과거의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여성이 누리는 경제적 의존과 차별적 성 역할에 근거한 남녀의 권력관계에 고착화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성관계가 자신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김경희 · 정혜정, 2011). 즉 2000년대 이후 2,30대 젊은 여성들은 취업이나 연애, 결혼 등의 결정과정에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지니며 고학력, 디지털 친화 능력, 욕망에 대한 솔직함 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내의 여성의 권리와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30대 젊은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중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다. 남성은 높은 스펙을 쌓아온 여성과의 대등한 경쟁을 요구받으면서도 한편, 과거 가부장제의 산물인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었다. 여성 또한 커리어의 측면에서 동성 및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역할, 의무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연구는 남성들이 연대를 통해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이것이 여성혐오 담론으로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한다(주창윤, 2011; 김수아·최서영, 2007). 즉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반여성주의적 정서의 기반은 여성의 가시적 등장과 남성의 위기의식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함에 따라 남성들 혹은 주류 언론들이 이를 문제적이라 지적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여성상은 자본주의적 소비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일탈함으로써 본연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소위 ‘나쁜 여성들’로 표상된다(서지영, 2006; 이종수·최지혜, 2005). ‘된장녀’에 대한 남성의 분노가 소비를 통해 여성들이 충족하고 있는 욕망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모현주, 2008).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본 글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성호명 담론을 둘러싸고 어떠한 젠더 정치학적 함의들이 나타나는지, 여성호명 담론은 한국사회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여성호명 담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남성 커뮤니티 D사이트(dogdrip.net)를 선정하여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 및 댓글을 분석하였고, 김치녀, 패륜녀 등 대표적인 유형의 ‘00녀’ 관련 신문기사를 관련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식을 수렴하기 위한 질적 심층인터뷰방법 중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한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들을 교류하거나 토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강진숙, 2012, 122쪽)”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여성호명 담론의 형성 배경

온라인 공간의 남성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남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상 술집(virtual pub)’으로 명명하였다(Kendall, 2002). 즉, 남성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들은 일상공간의 술집과 같이 끼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 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단순한 놀이와 유희는 여성호명 담론 형성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남성 커뮤니티에 주로 변태적인 유머도 많이 올라오고, ‘00녀’에 대한 게 많아요. 이거 보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요새는 유행이 그냥 한 여자를 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여자를 까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또 까는 거죠.”(사례 7: 남, 28세)

“조리돌림”이라고... 트위터에서 유명인이 말실수를 하면 리트윗(re-tweet)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이걸 돌려가면서 씹고 까는 거예요. ‘00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조리돌림’은 하나의 유희문화인 것 같아요.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되게 익숙한 거고, 사실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여자들이 진짜 지하철 안에서 담배 핀다든가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면 이걸 비꼰 때 희열을 느끼는 거죠. 계속 패러디하고, 패러디하는 거죠. (여성들의) 행동 자체보다는 이 상황이 패러디되고 비꼬아지는 걸 즐기는 거 같아요.”(사례

8: 남, 29세>

“남자들의 커뮤니티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일단 거기 모이면 막말을 하는데, 관음증을 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못하는 말들, 특히 여자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사례 10: 남, 28세>

“(00녀)와 관련한) 그런 글을 올리는 게 자기 게시물에 댓글 많이 달리고 하는 것을 즐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일단 찍어서 올리고 보니까... 주목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거나 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게시물 올리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례 11: 남, 34세>

이처럼 남성적 성격이 강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호명이 발생하고 전유되는 방식은 유희와 조롱을 통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7, 8>이 언급한 “댓글놀이, 소리돌림, 패러디” 등의 온라인 유희문화를 통해 여성호명에 대한 의미의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진실보다는 여성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은 ‘김치녀’로 표상되는 한국 여성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성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 나타난 한국 여성에 대한 비난은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 특히 “‘김치녀’들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원인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남성’들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대를 아울러 ‘남성’이라는 유일한 동질적 집단을 만듦으로써 피해자로서의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성호명이 남성 집단의 집단적 동일성을 담보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의식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논의들을 온라인 ‘가상 술집’으로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호명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인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질적인 ‘마초 문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나타난 변형된 남성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치녀’에 관한 게시글은 ‘김치녀’에게 당한 피해 사례, 특정 여성의 태도를 김치녀의 행동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비난의 내용은 ‘김치녀’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 혹은 ‘김치녀’를 비난하는 남성을 ‘호구’라고 지칭하는 것이었고, 비난의 이유는 해당 남성이 여성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찌질한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호명 담론에 대해 호명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담론을 촉발시키는 남성들끼리 논쟁을 통해 스스로를 자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루저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루저’라는 단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키 작은 남자를 ‘루저’로 지칭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논쟁을 낳았다. 처음, 해당 발언을 한 여성을 겨냥한 비난 담론은 점차 남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루저’로 칭하고, 이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내며 남성들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즉 기존에 형성된 규범적 남성성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루저’라는 단어 속에 축적되며, 남성들의 자조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호명 담론의 주 형성 공간인 남초 커뮤니티는 과거 여성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과시하던 남성위주의 공간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 이용층인 2,30대 남성들은 오프라인에서 '00녀'와 같은 여성혐오 담론을 몇몇하게 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성비하적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00녀'에 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배경에는 한국사회 내에서 2,30대 남성들이 처한 입장이 자리한다. 한국사회에서 연애는 입시, 취업 경쟁만큼이나 치열하고, 쟁취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에 키, 자산, 직업적 성공 등의 조건은 단순히 개인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연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조건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지니지 못하는 남성은 스스로를 '찌질함'으로 표현하며, 결혼, 심지어는 연애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비하했다. 젊은 남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신의 찌질함을 비하하고 폭로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호명 담론은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다.

4. 여성호명 담론의 주요 범주:

외모에 대한 기준 / 연애와 결혼

여성호명 담론은 주로 여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유형의 여성호명 형태를 포함하였다. 여성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는 호명은 '패륜녀', '김치녀', '성괴녀' 등 여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많은 '00녀'를 가로지르는 여성에 대한 비난은 소위 '개념 없음'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개념 없음'의 기준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여성의 외모에서부터 일상적 소비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울렀다. 이중 '김치녀'는 여성혐오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호명으로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개념 없는' 행태를 보이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인하였다. 그렇다면, 소위 '개념 없는' 여성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가?

먼저, 여성의 외모가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여성은 '개념 없는' 여성으로 지칭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태극기를 탱크탑 형태로 만들어 입어 해외 언론에 소개된 여성의 사진 하나를 두고,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여성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한국인으로서 사과한다.", "김치녀가 나라 망신 다 시킨다." 등 인신 공격적 형태를 띠며 강하게 나타났다. 즉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사진에 대해 오직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며, '김치녀'라고 호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여성호명은 여성의 외모에 '특정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거짓의 범주'로 규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참/거짓의 대립 쌍은 '김치녀' 외에도 '오크', '성형괴물', '가슴절벽녀'/'베이글녀', 'G컵녀', '엘프녀' 등의 다양한 여성호명을 통해 드러났다. 어리거나 몸매가 좋고, 신비한 매력을 지닌 여성의 외모 기준을 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부자연스러움, 못생긴 얼굴, 몸매가 좋지 않음을 거짓의 영역으로 한정지으며 여성의 신체를 가로지르는 참과

거짓의 대립이 나타났다. 특히 ‘성괴녀’ 즉 ‘성형괴물녀’라는 호명은 여성에게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성취하기 위해 성형수술도 불사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미를 잃게 되면 도리어 ‘괴물’로 비하된다. 이러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분법적 호명은 과거 ‘00녀’ 호명들과는 다른 위치를 여성들에게 부과한다. 적당한 성형과 미용 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자기관리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한 축으로 등장하며, 적당한 수준의 외모 역시 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 것이다. 때문에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모를 가진 여성은 별 다른 이유 없이 부정적인 차원으로 재단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연애 및 결혼의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 이용자들의 ‘비합리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여주는 게 시글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데이트 비용 및 결혼 준비 비용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전가하면서 이를 당연시 여기는 여성의 태도를 ‘개념 없는 김치녀’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솔직히 주변에서 소위 ‘김치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개팅 나가서 돈을 안 낸다든지 남자가 자기 봉인 줄 아는 여자들 많죠. 그래서 ‘아 이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동시에 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사례 7: 남, 29세〉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김치녀’라는 게 ‘스시녀’의 반대말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진짜 일본여자들은 남자한테 순종적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완전 한국여자랑 다른 거죠. 한국여자들은 데이트 비

용은 무조건 남자들이 다 지불해야 하고, 무조건 남자들이 다 해 줘야 되고 해준다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기가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일단 남자한테 시키고 보잖아요.”〈사례 8: 남, 29세〉

‘김치녀’는 한국 여성들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비난하기 위해 생긴 단어로 한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인한 하였다. ‘김치녀’는 여성의 여러 부정적 행위들을 의미하는 호명이며, 〈사례 7, 8〉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데이트 비용을 모두 남자에게 지불”하게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남자한테 시키고 보는” 한국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러한 ‘김치녀’는 “더치페이를 잘하고 온순한” 일본여성을 의미하는 ‘스시녀’와 대조된다. 그러나 이것은 ‘스시녀’에 내재한 바람직한 여성상의 기준으로서 실제 일본여성이 선택된 것이라기보다 여성과 남성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 및 소비 행위들에 내재한 특수성과 차이들이 배제된 채 순종적 여성성이 강조된 결과이다. 이러한 ‘스시녀’와 ‘김치녀’의 대립적인 의미구도는 ‘개념녀’와 ‘00녀’의 대립적 호명을 통해 참/거짓의 일반화된 표준척도를 적용함으로써 사회 맥락에 따른 ‘특수한’ 소비행위들조차 왜곡된 행위로 상징되는 ‘거짓’의 동일한 범주에 편입되고 배제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난의 대상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아니라 주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남성 커뮤니티 게시 글에서 나타난 한 남성의 말을 인용하면, 20대 초반 여성은 아직 “찌들지 않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며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남성을 이상형으로 지목하거나 남성을 봉으로 보는 ‘김치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 연애에

있어 2,30대 젊은 남성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여성혐오’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회의적인 가치관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글은 한국사회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호명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2,30대 젊은 여성에 대한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해당 담론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젠더적, 사회문화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호명 담론이 구성되는 배경을 살펴본 결과,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일종의 쾌락적 유희로서 여성호명 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호명 담론 형성의 배경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하가 자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여성호명 담론이 ‘개념 없음’이라는 부정적 범주에 여성의 외모, 연애와 결혼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외모, 연애와 결혼에 대한 태도, 윤리적 기준에 대해 인위적인 참/거짓 대립의 논리를 부과함으로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념 없는’ 여성으로 호명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글은 ‘00녀’ 현상으로 불리는 여성호명 담론 내에 어떠한 젠더적 의미들이 스며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히 가해자(남성)-피해자(여성)의 이분법적 구도, 억압적인 관계 등의 관점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고 특정 보다는 피해자/가해자로 불리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 맥락들을 좀 더 깊이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의 여성호명 담론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2,30대 청년층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 사회의 이슈중 하나로 등장한 여성호명 현상을 단순히 여성억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특정인을 또 다시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맥락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강진숙 (2012). 노인여성의 미디어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연구: 20대 대학생들과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4권 1호, 111-138.
- 김경희 · 정혜정 (2011). 대학생들의 성, 사랑, 결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권 4호, 51-71.
- 김수아 · 최서영 (2007). 남성 정체성(들)의 재생산과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 게시판과 토론형 게시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통권 8호, 5-40.
- 김채현 (2012. 4. 19). 버스무릎녀, 제2의 00녀? ‘아버지뺨에게 가혹VS마녀사냥 우려’. 『서울신문』. Available: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9050036>
- 모현주 (2008).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화려한 싱글과 된장녀. 『사회연구』, 15권, 41-67.
- 박태근 (2012. 2. 29). ‘국물녀’ 비난 일색이던 누리꾼들, CCTV 공개에.... 『동아일보』. Available: <http://news.donga.com/3/all/20120229/44408658/1>
- 서지영 (2006).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22권 3호, 200-228.
- 신희선 (2005).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페미니즘. 『아시아여성연구』, 44권 1호, 226-267.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통권 57호, 33-56.
- 윤세정 (1999).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논집』, 16권, 309-310.
- 이정연 · 이기형 (2009). ‘치릿’ 소셜,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대중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와 〈스타일〉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7권 2호, 87-138.
- 이종수 · 최지혜 (2005).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커뮤니티 문화: 〈나쁜 여자가 되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클럽의 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통권 3호, 98-143.
- 이선영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배제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16권, 310-312.
- 주창윤 (2011). 젠더 호명과 경계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집. 299-314.
- 홍지아 (2012). TV가 제시하는 사랑할/받을 자격과 한국 사회 20대 여성들이 이를 소비하는 방식: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307-342.
- Haraway, D. (1991).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imians, Cybo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London: Routledge.
- Kendall, L. (2002). Hanging out in the virtual pub: Masculinities and relationships onlin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m, J. (2005. 7. 7). Subway Fracas Into Test of the Internet's Power to Shame. Washingtonpost. Available: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06/AR2005070601953.html>

한국 온라인 공간과 여성 혐오 정서¹⁾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1. 들어가며

온라인 공간과 그 이용자들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초기 연구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익명성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억압이 제거된 평등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기존의 젠더, 계급, 인종에 따른 권력들은 여전히 행사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Nacamura, 2002; 박은희 · 김수정 · 김예란, 2006). 불행하게도 현재의 온라인 공간은 초기의 평등주의적인 미래 유토피아 상과는 거리가 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의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반-여성, 반-여성주의적, 더 나아가 여성 혐오의 정서 구조이다. 이러한 정서의 기반은 '여성'의 가시적 등장과 이에 대한 '남성'의 위기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성의 위기는 통상 경제 위기와 관련되어서 논의되어 왔다. 많은 경우, 남성성은 논의될 필요 없는 당연한 것(Edley & Wetherell, 1997)으로 여겨졌지만,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한 여성주의의 도전 때문에 남성성의 위기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등장은 직접적인 남성 정체성의 제 1축, 즉 생계 책임자(Breadwinner)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또한 상업주의의 성장이 상업화되기 쉬운, 즉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남성성의 이미지들을 구축하면서 남성성의 전통적 이미지는 변환을 겪게 되

1) 이 글은 김수아 · 최서영(2007). 남성 정체성(들)의 재생산과 사이버 공간. <미디어, 젠더 & 문화> 8호(5-40). 및 한국여성단체연합(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김수아(2015).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4권 2호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어 수동적이고 관음의 대상이 되는 남성 이미지 역시 등장하게 되었다(Nixon, 1997).

또한 남성 이미지의 변화와 더불어, 반 여성주의적 주장들이 주요 대중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기 시작했다. 브룩스(Brooks, 1997/2003)는 여성주의에 대한 역행(backlash)을 설명하면서, 남성들이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여성주의자들이 반체제적이거나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진단하였다. 여성학에 대항하는 남성학의 등장은 기존의 남성적 가치들을 옹호하면서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기도 한다(정유성, 2001). 국내에서도 역시 남성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기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남성의 위기의식은 1999년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운동이 결실을 맺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온라인 공간의 특성은 성별화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며(김수아, 2011), 군가산점제 논란 이후 여성 대 남성 공간으로 구별된 온라인 공간 지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남성 이용자 중심으로 공개된 온라인 공간이 재편되고, 남성 중심적인 담론 구조가 지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하나의 기점이 되면서 군가산점제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의 저항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논의한 권김현영(2000)과 사이버 상에서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각 담론 주제별 남성들의 반여성주의적 정서를 지적한 박은희, 김수정, 김예란(2006)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이버 공간의 반여성, 반여성주의적 정서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0년대 한국 온라인 공간의 현황을 진단하고, 온라인 공간의 주요 정서 구조로

자리잡은 여성 혐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2. 여성 혐오의 개념

최근 한국 사회의 논란에서 여성 혐오의 개념은 일정 정도 ‘혐오’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 여성 혐오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일차적으로 감정적인 ‘혐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에노 치즈코는 그의 저서에서 여성 혐오(misogyny)는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자를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여성에 대한 멸시를 치즈코는 여성 혐오라고 불렀다(우에노 치즈코, 2012: 12-13).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제 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이 여성 혐오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 카사노바, 창녀/성녀의 구분 등이 모두 이 여성 혐오 개념과 관련된다.

누스바움(2012)은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는 대상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상화는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대상화된 사람은 오명과 낙인을 뒤집어쓰고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 누스바움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상화의 개념은 먼저 도구적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것, 대상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 대상의 활력을 부인하는 것,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 대상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 등이다. 포르노그래픽인 이미지, 신체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가장 극적인 대상화의 형태이며, 강간 위협 역시 대상화와 관련된다.

그런데 여성 혐오는 혐오 범죄와 관련하여 정책과 논의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범죄나 혐오 발언의 문제에서 여성이 비교적 큰 집단이자 어느 정도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혐오 발언을 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간주하고자 할 때 여성이 여전히 소수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여성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나영(2014)은 이미 성평등을 달성했다는 ‘신화’가 확산되는 이면에는 실제 한국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새로운 위협에 도달해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고 진단하였다. 실질적인 여성의 불평등한 삶과 문제를 가리는 성평등의 신화가 여성 혐오 정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 현상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자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온라인 공간의 반-여성/ 반 여성주의적 표현과 문제점

여성 혐오 현상은 2015년 다양한 방송 및 대중문화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라 격렬한 논쟁대상이 되었지만,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표현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정서는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는 일종의 남성적 정체성 구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반 여성과 여성혐오적 정서들은 여성을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성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실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장소이다. 베임(Baym, 2000)이 주장했듯, 개인은 현실 세계에서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 세계의 집단 규범과 공동체 가치에 영향 받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해당 집단의 가치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고 응답받는다. 또한 온라인 공간은 편향된 내용을 더욱 극화시키는 경향을 갖기도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그 집단의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고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김미희, 2002; 나은영, 2002, 2006). 나은영(2006)은 특히 개인 정체성이 숨어 있는 채로 집단 정체성만 부각될 경우 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상호 소통하는 공론장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성별화되어 존재하는 한국 온라인 공간은, 집단 극화가 일어나기 쉬울 뿐더러 이것이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견해만이 소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성 집단의 커뮤니티와 온라인 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반면, 남성 집단의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담론은 주로 남성 중심의 극화된 의견이 많다는 측면에서 현재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

1) 반-여성주의적 정서 구조

이러한 한국 온라인 공간의 맥락 속에서, 남성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타자화의 대상은, ‘여성주의자’이다. 사이버 공간의 마초 문화(이선영, 1999, 71-83쪽; 윤혜린, 2001, 55-56쪽)가 처음 개념화되었을 때, 마초 문화(Macho culture)란 가부장제 의식을 가진 남성들이 성별과 관련하여 민감한 화제가 나왔을 때 보이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와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졌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예로 1999년 군가산점제에 대한 현재의 위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화여대 및 각종 여성 단체의 게시판에서 나타난 양상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권김현영, 2000). 이렇게 한국 인터넷 문화의 초기부터 여성부로 대표되는 여성주의자는 남성의 적이자 문제 있는 여성들로 정의되어 왔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반 여성부, 반여성주의 정서는 한국 고유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여성주의자들은 ‘나쁜 여성’들로, 이 ‘나쁜’에는 인터넷 용어로의 ‘개념 없음’, ‘이기주의’ 등을 포괄하게 되고, 인터넷 상에서 상용어 등록이 되어 사용되는 ‘꼴페미’와 같은 단어들로 대표되었다. 특히 ‘여성가족부’ 혹은 ‘총여학생회’, ‘여성단체’ 등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제도화된 여성주의 운동이 정책 등으로 반영되는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인 셈인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상의 특유의 집단 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일종의 ‘구성된 나쁜 여성주의’가 중요한 담론적 자원이 되었다. ‘여성부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뽐)을 통해 퍼진 게시물이 이와 같은 ‘나쁜 여성주의자 만들기’의 중요한 예이다. 이들 나쁜 여성주의자들이 갖는 특성은 극성, 무개념, 찌질댄다, 바보, 꼴통, 이기주의 등의 부정적인 어휘들

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윤보라(2015)의 지적대로 이러한 게시물들의 진실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성부의 업적으로 언급되는 일들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거나 과장된 것이지만 그것을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는다. 여성주의자들이 모두 “꼴페미/꼴페미”라는 단어로 대표되기 때문에 여성주의에 대한 다른 시각의 논쟁이나 토론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단지 이성적인 시민들이 나쁜 여성주의자들에 대해 비판, 혹은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열려있을 뿐이다.

남성 중심의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주의자는 비정상적 범주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주의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남성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여성주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여성부로 대표되는 여성주의자를 논의하는 경우 그 주요 주제들은 이들과는 논의할 수 없고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상대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자에 대한 적대 속에서 남성은 ‘시민’으로서, 개념 있는 자(이성 있는 자)로서, 여성은 시민 자격이 없는 자이자 무개념한 자로 이항 대립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을 활용하면서 ‘그들’을 타자화하고, 악으로 경계 짓는 담론적 실천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여성부로 단일하게 환원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여성부, 된장녀 등 여성 관련 게시글의 주제어들을 검색해서 볼 때 그 게시글의 방향성이나 댓글의 글이 지속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의 이야기들은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 ‘진실화된’ 담론들로 존재하는 것이다.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주의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와 비판이 초기 인터넷 문화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여성에 대한 비난은 비단 여성주의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중이다. 2005년 ‘개똥녀’ 사건을 필두로 각종 ‘녀’들이 인터넷에서 명명되고 비난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온라인 세계에서 집단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 쉬워지고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똥녀(2005), 강사녀(2006), 군삼녀(2007), 신상녀(2008), 루저녀(2009), 명품녀, 패륜녀, 지하철 반말녀(2010) 등 매년 새로운 ‘녀’가 등장했고, 이는 그 특정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물론 여성 일반에 대한 비하와 폭력적 낙인으로 고착되었다(주창윤, 2011).

이러한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 표현들의 양상은 첫째로는 대상화로 나타난다. 여성혐오, 혹은 반여성적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증오나 감정적 ‘싫음’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의 구조 원리로서 여성을 멸시하고 폄하하는 기저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숭배와 혐오는 별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 소위 남초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여성 연예인 사진에 대한 소비 방식은 겉으로는 숭배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대상화의 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여성의 신체를 분할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내용의 사진을 게시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올리는 행위들은 그 게시물의 댓글에 “하악하악” 등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들로 인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멀비(Mulvey, 1972) 이후로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바의 여성에 대한 대상화 재현 양식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남성성을 구성하고 남성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남성 중심적 성문화(정유성, 2001)에 있다는 주장의 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대상화의 문제는 2010년 이후로 일베의 등장과 함께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간 베스트 사이트(이하 일베)가 강력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인해 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베의 표현 양태는 이전의 공개된 커뮤니티들이 보여준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 표현의 핵심적 양태로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단지 성적 소비 대상으로서의 여성 신체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을 성기로 축소하여 지칭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여성을 성기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화된 표현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이고 과격한 여성의 대상화 표현들은 특정 사이트를 벗어나 네이버 뉴스 댓글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 확산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기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음란 표현으로 문제 삼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성적 도구화하며, 대상화하는 것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주체성과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러한 표현들이 상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정액받이’, ‘육변기’ 등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남성의 성욕을 풀어주는 존재로만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축소하는 표현들이 자율적인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¹⁾.

3)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비하

한편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혐오 발언과 비하 표현들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을 성녀/창녀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적 발언을 한 여성에게 걸레나 갈보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고, 여성을 일반화 하여 비하하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걸레와 수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성이 성적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걸레라고 비난을 하고 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의미로 수건을 쓰는 것이다. “걸레 구분법”에서 문신한 여자를 이야기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걸레라는 등 어떠한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고전적인 편견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부인하는 비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베와 같은 경우 강간 위협이나 폭력의 표현들이 규제없이 유통되는 특성을 보인다. 강간 위협, 성기에 대한 폭력을 언급하는 등의 성적 위협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표현하면서 강간을 하겠다고 하거나 성기에 대한 폭력 표현을 포함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대체로 극단화된 폭력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된 글을 읽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 일간베스트에서 쓰는 “보전개(보*에 전구를 넣고 깨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극단적 폭력 표현의 일례이다. 그 외에도 여성 할레, 자궁 적출 등 극단화된 폭력 표현은 주로 일간베스트 사이트나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익명이 보장되고 규제가 적은 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다.

4) 여성의 속성을 일반화하고 환원하는 표현

연애가 주요 관심사인 10대-2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여성은 소망과 원망이 섞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연애 관계에서 그 시작 준거가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있고, 남성의 경우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진화 심리학적 입장이 지지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연애 관계에서의 친밀감, 정서적 애착, 이해심 등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론적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사실상 연애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설명도 가능하다(주현덕 · 장근영, 2006, 41쪽).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재현되는 한국의 남성성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 남성성의 기초인 가장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여성들의 연애 행태는 남성들에게 있어 분노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성주의자와 같은 특별한, 비정상적

1) 이러한 문제되는 표현의 일정 부분은 정식 수입되지 않는 일본 하위문화들과 관련되어 만들어지는 표현들이다. 일본의 AV(Adult video)물이나, 미소년연애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콘텐츠들은 공식 수입을 거치지 않고 수용층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막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제되지 않은 번역어가 만들어지곤 한다. 동시에 음란물이 불법 콘텐츠이므로 그 콘텐츠의 수위나 표현의 양상과 상관없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공적인 담론 장에서 논의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콘텐츠가 갖는 하위문화적 성격이나 윤리성의 경계, 젠더 정치학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수용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의 경계가 다르며, 윤리의 차원이 다르더라도 이를 모두 하나의 잣대인 저작물 공유의 불법 문제로만 생각하며, 더구나 이 저작물의 공유라는 불법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특정한 하위문화의 코드에 대한 윤리적 의식이 부재하는 것이다.

인 여성의 범주가 아닌 일반 여성이 분노와 적대의 대상으로 구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을 착취하는 나쁜 여성”의 범주가 구성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발생한 소위 ‘된장녀’ 논쟁은 이러한 나쁜 ‘여성’을 대표하는 신조어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여성에게 당하는 남성은 ‘머슴’ 혹은 ‘호구’라고 불리며 역시 멸시의 대상이 된다. 나쁜 여성의 특징은, 남성을 경제적 능력으로 평가하며, 남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며, 과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남성이 당연히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되는 것이다. 즉, 나쁜 여성의 범주화는 ‘남성성의 위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전형적으로, 여성의 미와 남성의 재력이 교환되는 관계에 있는 가부장제적 결혼, 혹은 성관계에 대한 시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2000년대 후반 이러한 ‘된장녀’ 개념이 온라인에서 유행했을 때, 당시 이 단어는 일부 여성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하지만 그 ‘일부 여성’이라는 담론적 구성물이 여성 혐오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혐오적 표현이 하는 일이 차별과 편견을 공고화 하고 진실화 한다는 것을 상기하여 보면, 된장녀 담론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특정한 여성 집단을 만들어 내고 이를 괴물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0년 이후 일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진 ‘김치녀’는 ‘한국’을 표현하는 단어로 김치를 선택하여 한국 여성의 특징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김치녀’에게 특정한 속성

을 부여하는데, 이 속성은 과거 2000년대 초반 사용되던 ‘된장녀’나, ‘보슬아치’ 등의 표현이 함의하던 바를 한 번에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치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 된다. 비만이고 못생겼고 성적 매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성형을 하지만 원래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을 해도 예뻐지지 않고 반복하기만 해서 성형 괴물이 된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성의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할 뿐이지 능력이 없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민폐를 끼칠 뿐이다. 한국 여성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신체적으로 백인 여성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체적인 것 외에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백인 여성들 역시 비난과 멸시의 대상인 점도 맞다. 즉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있어, 한국 여성은 성적 대상화의 환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폭력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오의 대상이 된다. 혐오의 대상이므로 폭력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도 자연스럽게 성립되어 있다.

“김치녀”라는 표현은 현재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 정서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박권일(2014)은 이 표현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유래하여 널리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넷우익의 여성 혐오 대상으로 호명된 김치녀는 소위 일부 젊은 여성들을 의미하지만, 일부의 젊은 남성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상이라고 하였다. 경제 위기와 여권 신장은 일부 젊은 남성들에게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성 혐오를 채택한다는 진단이다. 그리고 일부의 젊

은 여성들이 그러한 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치녀” 담론에 대해서 안 그런 젊은 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론이 아니며 한국 여성의 특성이 그러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박권일의 제안이다. 구민경(2014)은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김치녀를 비롯한 여성 혐오 현상이 “전반적인 소수자 혐오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보라(2013)는 이러한 여성 혐오적 담론은 김치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여성이 사회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분노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안전망”이 되어 온 역사의 다른 한 면이며, 일베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여성 혐오의 문제를 주목해야 함을 말한다. 즉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의 정서를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불안, 남성의 위기 등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김치녀 및 이와 유사한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표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수준은 현재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4. 온라인 여성 혐오 표현의 효과와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과 편견의 사실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결레/수건, 혹은 김치녀/탈김치녀와 같은 명백히 명시적인 비하, 멸시 표현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특정화되지는 않지만 게시글에서 드러나는 정서 구조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 표현들은 여성 집단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효과를 갖는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분에 담긴 편견이 사실의 지위를 갖고 “실제로 비난받아 마땅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이다. 이는 또한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박권일(2014)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 스스로 개념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여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한국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여성 혐오 표현들은 잘못된 일부 여성들에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혐오라고 까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여성들에게 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이야기는 일부의 몰지각한 여성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에 정당하다는 논리 구조를 함축한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적 표현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정치적 지향성,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등 행위자가 평소에 가진 선입견에 근거하여 공격하는 것이며,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홍성수, 2013). 혐오 표현이 피해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혐오 표현은 심리적 해악을 미친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내재된 편견에 근거하여 사회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집단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가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루어지는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대상화와 이에 따른 인격과 주체성 부정

상기한 여성 혐오 표현들의 상당수는 누스바움(2012)의 지적처럼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거나, 신체와 성을 도구화 하고 대상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적 도구화가 가장 강력하게 혐오 표현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간 위협이나 성적 폭력에 대한 암시, 혹은 위협은 여성이 언제나 여성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침해 가능한 대상으로 개념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 혐오 표현을 여성이 접하게 된다면 정체성의 부정은 물론, 도구화되고 대상화된 존재로서 인격이 부정되는 데 대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화의 문제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여성 혐오 표현들이 온라인 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된다면 여성의 비인격화, 여성의 주체성 부정이 고착되고 재생산되는 구조가 확립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러한 대상화가 가볍게 다루어지고 가벼운 장난이나 유머처럼 취급된다면 더욱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상화를 통한 여성혐오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혐오 표현의 심리적 충격 효과와 여성의 공론장 참여 약화

제인(Jane, 2014)은 이메일을 통한 여성 혐오 표현의 전달이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특히나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 공간을 침해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큰 좌절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신체적으

로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 위협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대한 암시 혹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폭력적 표현들이 그 표현을 접하는 이들에게 주는 해악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종국적으로는 공론장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방해한다. 공개된 공간에서 거침없이 전개되는 여성 혐오의 표현들은 해당 메시지를 접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해당 공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공개된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로 옹호받기에는 표현의 내용과 수준이 미치는 해악은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중요하지만, 특정한 대상을 일관되게 겨냥하여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차별과 배제를 확산하고 확정하는 혐오 발언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만은 없다(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5. 나가며

현재 한국의 온라인 공간은, 지배적으로 여성에게 적대적인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나쁜 여성주의자를 만들어내고 남성을 착취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여 비난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 혐오 정서 구조를 강화한다. 남성들이 오히려 성차별의 희생자라는 이와 같은 주장은 여성주의의 주장에 대한 역행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인데, 역차별이라는 담론 구조를 통해 희생자를 자처하는 현재 온라인 공간의 남성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정당화하여 쏟아내는 중에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익명성에 기반한 집단 극화와 같은 사

이버 공간의 특성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진실화되고 있어 문제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특질에 따라 여성 혐오의 담론과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이미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발언이 문제되는 것은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계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세계의 양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 세계의 젠더 질서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정서가 이처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 위기 속에 한국 사회가 점차로 보수화 되면서 개개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감수성은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간의 연대 의식이 약화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 사회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별 간 대결 구도로 구성된 현재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여성 혐오 표현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론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토론하고 주장하면서 지배집단에 대한 저항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을 온라인 공간에 기대할 수 있으면 평등한 참여가 일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 중 하나는 이용자의 실션을 통해 구성되어 가는 공간이며 변형과 개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의 젠더 질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용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이용자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구민경(2014).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 여성 혐오. 속대신보 2014.10.06.일자.
- 권김현영 (2000). 군가산점 소동과 사이버 테러. 『여성과 사회』, 제 11권, 133~145.
- 김미희 (2002). 『인터넷에서의 집단범주화가 집단성 지각과 내집단편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아 (2011). 한국 사회 사이버 공간과 젠더 정치. 강상현 외,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134~170). 서울: 컴북스.
- 나은영 (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의명성, 상호 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권 1호, 93~127.
- 마사 누스바움(2012). 대상화와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솔 레브모어, 마사 누스바움 편. 불편한 인터넷 : 표현의 자유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117~148). 의왕: 에이콘.
- 박권일(2014). 여성 혐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매거진 나.들』 2014.02 제16호.
- 박은희, 김수정, 김예란 (2006). 『사이버공론장의 성평등화 측정과 평가: ‘성평등화 저해 지표’ 개발 및 활용』. 여성가족부 정책보고서.
- 우에노 치즈코(201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윤보라(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 진보평론, 57권, 33~56.
- 윤보라(2015).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땠다구?』. (9~46). 서울: 현실문화.
- 윤희린 (2003). 사이버 공간 속의 여성 현실: 여성 네티즌의 공간적 체험을 중심으로. 『계간 사상』, 68~95.
- 이나영 (2014).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 불평등- ‘평등 신화’ 와 불/변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한국여성학』, 30권 4호, 1~45.
- 이선영 (1998).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배제 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성 (2001). 『따로와 끼리 - 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서울: 책세상.
- 주창윤(2011).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5, 299~314.
- 주현덕 · 장근영 (2006). 한국 대학생의 연인평가와 연애타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제 20권 1호, 39~54.
- 홍성수(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 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공동세미나 발표문.(2013.7.18.).
- Baym, N. K. (2000). Tune in, log on: Soaps, fandom, and online community. Thousand Oaks, Ca: Sage.
- Brooks, A. (1997). Postfeminisms:feminism, cultural theory and cultural form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김명혜 역(2003).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 이론>. 서울: 한나래.
- Edley, N. & Wetherell, M. (1997). Jockeying for position: The construction of masculine identities. Discourse & Society, 8(2), 203~217.
- Jane, E. A. (2014). ‘Back to the kitchen, cunt’ : speaking the unspeakable about online misogyny,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28(4), 558~570.
- Nakamura, L. (2000). "Race in/for cyberspace: Identity tourism on the internet" in David Bell (Ed.). The Cybercultures Reader. NY and London, England : Routledge.
- Nixon, S. (1997). Exhibiting masculinity. Hall. S.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 (291~336). London, England : Sage.

